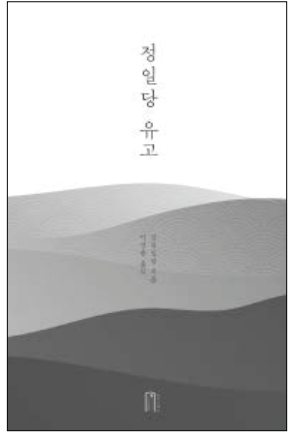


◆머느리권씨 열전 14-3

정일당 강지덕의 어머니

권씨 (시중공파31세,청강거사 권서응의 딸, 옥소玉所 권섭의 외증손녀)



무엇보다 남편의 진심어린 사랑속에 행복했으나 어린 아이들이 낳으면 일년을 못넘기고 다 죽으니 그것이 아픔이었을 것이다.

당시 유학자 권우인(權愚仁)은 '정일당 유고'에 실린 글을 보고 여인의 것이 아니고 산중 선비의 글이니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 식으로 자기 신세타령이나 꽃과 나비 이야기 읊조리는 것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했고 신사임당은 시, 임윤지당은 산문이나 강정일당은 시서화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평했다.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바느질 하면서 다 외우는 수준이었고, '밥은 삼일 굶어도 글은 하루라도 빼 놓지 말라'라고 했으니 그 학문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후에 남편의 이름으로 제문,발문,축보,제례,상례 등 많은 관련 글을 지어 주곤 했는데 안젠가 자신의 글을 선비가 칭찬하자 그 다음 부터는 공개하지 않아서 상당한 시문이 일실되었다.

정일당은 오직 성(誠)과 경(敬)만이 道에 들어갈 수 있는 門이라고 주장하며, 학문의 성과나 업적보다 심성수양과 도덕적인 실천을 더 중시하였다.

이렇게 정일당은 남다른 집념으로 학덕을 쌓는 한편 늘 부녀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貞愨首矣(정각수) 정숙함을 으뜸으로 삼고서
順從務焉(순종무연) 순종을 임무로 여겨야하고
是婦道也(시부도야) 이것이 부녀자들의 도리니
爾須勉旃(이수면전) 자네들은 오로지 힘쓸지라



이것은 정일당이 종손자 근진(謹鎭)의 부인인 최씨와 권씨에게 준 시이다. 이 시에서 그는 정숙함과 순종을 부녀자의 법도로 내세우고 모릅지기 이에 부지런히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1822년 50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문집을 30권 저술했으나 거의 없다. 그리고 죽음에 임해서도 도학자 같이 흔들림 없이 죽기 3일전 미리 절명시를 짓고 '살과 죽음이 다 각자의 분수이니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며 성현이 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1832년9월14일 61세로 생을 마감하니 10월30일날 청계산에 안장하고 강좌의 아들인 강진구가 대를 이었다고 하는 데 尹씨가 아니니 의아하다. 친정식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그렇다면 외손 봉사도 아니고 친정 조카가 봉사(奉祀)한 것은 여권신장론자로서 획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된 부부의 길

남편 윤광현은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너무 슬퍼하니 주변인들이 '자네는 홀아비 신세가 처량해서 그런가 아니면 돈이 없어 제사 차리기 어려워서 그런가?'하니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가니 닳았은 배와 같고 길잡이 없는 장님같이 그렇다네'라고 하여 평생 친구이자 스승을 잃은 것처럼 생의 의미를 잃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경학 공부에 도전한 그녀의 진면목은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아서 정일당이 죽자 윤광현은 아내를 위해 뜻 깊은 기획을 했으니, 정일당 문집을 만드는 일이었다.

남존여비사상의 조선에서 아내의 '유고문집'을 펴낸 윤광현은 정일당을 동반자의 관계로 인식했을 것인데 그리해서 탄생한 '정일당유고'에는 시 38수, 서 10편, 명 5편, 기 3편에 묘지명, 행장 등 정일당이 생전에 추구하고 쓴 글들의 다수가 실려 있다.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그녀의 학문과 덕을 기리어 남편 윤광현은 정일당 사후 4년 뒤 제재산(?)을 털어서 주위의 편찬을 들으면서도 기어이 <정일당유고 靜一堂遺稿>를 탄생시켰다. 그나마 이것으로 정일당의 그 많은 글과 작품중 일부가 남게 된 것이니 이는 남편의 사랑과 존경이 있었음이니 가산한 일이다. 그리고 육년 년하의 남편은 육년 뒤

정일당의 뒤를 따라가니 공교롭게도 같은 나이에 사망한 것이 된다. 그리고 청계산 자락에 정일당과 합장되어있다.

여기서 비록 정일당과 부군 윤씨는 좀 특수한 관계라고는 하지만 상호 존중과 예를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두 사람의 사례는 정말 모범적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신사임당이 모범이라지만 실제 부부관계는 누구의 잘못이던 간에 좋지가 않았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태도도 좋은 것이 아니고 본받을 것이 못되는 것이라 본다.

정일당 부부의 사례는 오늘날에도 본 받아야 할 참된 부부의 자세라 아니 할 수 없다.

청계산 자락의 원앙금침

청계산 국사봉 아래 금토동 깊은 숲의 고즈넉함을 만끽하며 산길을 오르다 보면 정일당 강씨 묘라는 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공금함을 가지고 발길을 재촉하다 보면 '정일당'이라는 현판이 걸린 정일당 사당 입구가 보이고 입구 양쪽에 세워놓은 커다란 돌들이 반겨준다. 사당에서 강씨 묘소까지는 800미터가량 더 가야 한다.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호 '정일당 강씨 묘'의 주인공 강정일당은 1832년 남편 윤광현보다 일찍 사망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5에 묻혔다. 묘는 훗날 남편 윤광현도 함께 묻힌 합장묘이다.



파평윤공단체 휘령면 배유인 정일당 진주강씨 지묘(坡平尹公坦齋 潘光演 配 樛人 靜一堂 晉州 姜氏 之 墓)



정일당 강씨 사당과 윤광현과 정일당 추모비 (성남시 금토동 662, 성남시 향토유적1호)

이제 정일당의 사당에 읍하면서 非才한 시기를 올려본다. 아울러 권문의 머느리가 낳은 조선조 유일무이한 여중군자를 생각하면서 여권신장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

靜拜一堂姜氏祠堂 정일당 강씨 사당에 절하며

진허 권오철

金土岡祠 靜一堂 (금토강사 정일당)

금빛 흙 언덕 금토동 강씨사당 고즈넉한 집현채 있어

渺人親禮 想獻廟 (묘의친례 상일상)

먼 친족이 찾아 예를 표하고 경모의 진을 올리려하네

淸君子女 恒心突 (여중군자 항심소)

청녀군자로서 斯文을 밝히는 여인이 항심속에 미소짓고

尹權如實 至德鶯 (윤권여빈 지덕약)

윤씨권씨 두남 손님처럼 존경하니 지역한 원앙이라

글 권오철 기자

하였다. 올 들어 열 번째로 맞이하는 파조 정알레에 권오석 도유사(都有司)를 비롯하여 권주연 파종회장, 권병균, 권영건 고문, 권정수 부회장, 권오중 제례위원장, 권영문 전 제례위원장, 권오명 감사, 권대수, 권영보 운영위원, 권기윤 사무국장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도유사를 맡은 권오석씨는 제복(祭服)에 갖을 쓰고, 다른 임원들은 평상복(平常服)에 유건(儒巾)을 쓰고 재배(再拜)를 하는 등 엄숙하게 정알레를 봉행하였다.

정알레가 끝나자 임원들은 일원정 마루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음례(相摺禮)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오석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어떻게 하든지 임원 여러분들은 아프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좋은 일반 생기도록 기원한다"고 당부하고 권주연 회장은 "여러분은 90세를 넘어 100세 이상 살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알레를 마친 임원들은 일원정 마루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안동지방은 3일 전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이날은 정알레를 마치자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임원들은 시내 옥동3길에 위치하고 있는 '몽돌해물탕' 식당으로 이동,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해물탕을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한국의 세계 양궁 제패의 저력, 전통 활쏘기 국궁

권성욱 생활스포츠지도사·청소년국궁지도사

궁도가 엘리트스포츠라던 인식이 생활 스포츠로 전환되면서 젊은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함께 초·중학교에 궁도가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방과 후 활동으로 인가되면서 궁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원래 우리 활 문화는 궁술(弓術)이라는 호칭으로 목표물을 맞히는 기술 또는 무술로, 고려 때는 무예 수련을 겸한 목적이었으며, 조선조에는 문치주의 풍조와 함께 무예 수련과 더불어 심신 수양을 통한 민심의 익히야 할 육예(六藝: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한 과목으로 중시되었다.

1894~1895년에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일제에 의해 전국의 사정이 일시에 폐정되었으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고, 1920년 3월 조선·동아일보의 개국을 계기로 전통문화로서 국궁의 결집을 위하여, 과거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던 궁술은 다시 등장하여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으나 흥행성과 음주·폭력·기생대화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풍속문화로 지탄받아 외면되었다.

이러한 사회 여건을 YMCA 기독교청년회가 궁술계의 각성 촉구를 통하여 무마하면서, 1928년 6월 28일 서울 경기지역 14개 사정 대표들이 모여 궁술대회 규칙을 협의하고 조선궁술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조선의 궁술』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고, 1932년 조선궁도회로 개칭하여 전통문화로서 정체성을 갖추려 했다.

해방을 맞아 주권국가의 궁도문화 단체로 1948년 8월 25일 대한궁도협회로 개칭되었지만, 유연전 바탕 거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 이념,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의례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을 설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식체제와 표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서양이 활을 병기로 사용하였을 당시의 공통점은 200m 이상의 사거리의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어야 하며, 조선시대 무과 과시에 출현할 체력을 갖추려면 최소 100근(132파운드) 이상의 활을 당길 수 있는 체력을 가져야 했음은 공통된 사실이다.

활이 병기가 아닌 문화로 전환되면서, 서양은 경기 거리를 남자는 30~90m, 여자는 30~70m로 정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사거리를 통해 세계선수권 대회와 올림픽 종목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문화가 되었다.

일본은 28m·60m 사거리를 규정 사거리로 학교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소년 나이의 3~4배의 사거리로 하고, 성인은 남자 70m, 여자 60m이고, 중국은 40m·60m, 터키는 30m에서 15m씩 늘려가며 90m까지 5단계로 경기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과 과시의 유연전 바탕 거리인 145m를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호도하고, 일반인들의 체력으로는 무리한 사거리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체육으로서의 활쏘기 궁도

2012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7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개정안 발표를 통하여 "게임중독 및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며 "학교 스포츠클럽에 궁도를 포함한다"고 발표하여 국궁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활쏘기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신체 근육을 긴장시킨 다음 단전 호흡을 하면서 화살을 쏘므로 폐활량과 근력이 증강되어 온몸을 건강하게 하고, 표적을 향해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하기에 잡념이 없고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며, 한순(5발)을 쏘고 과거까지 왕복해서 걸으며 화살을 쏘고 하는 동작의 반복으로 자연스레 일일 운동량이 된다.

사원들과 동진 동퇴를 통하여 협동심과 호연 지기가 길러지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 야외에서 혼자 또는 여럿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당한 종목으로 조상의 얼과 슬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이며, 정신문화로서 5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학교체육으로서 탁월한 교육적 가치를 선비교육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육예(禮樂射御書數)의 하나이며, 매우 재미있는 체육을 겸한 놀이로 심신 수련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

궁도 9계훈에 포함된 인예덕행, 정신정기, 성실결손, 자중절조, 예의엄수, 엄직과감, 불원승자와 같은 내용은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의 전형이며, 국가무형문화재로서 활과 관련된 신화, 전설, 역사 이야기(주몽, 양만춘, 이성계, 신승겸, 장보고, 이순신, 정조)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와 교육의 교재이며, 각종 축제 편찬 풍자 묘사 명작 신기전 등은 전통 과학기술의 정수이다. 세계 활의 역사나 한국의 양궁 제패와 전통 활의 부활은 국제이해 교육과 세계화 교육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교육의 문제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에 따른 스트레스 축적과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쏘기를 통한 집중력 강화와 자신과의 경쟁은 정말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경쟁이라는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된다.

학교체육 궁도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청소년기 학생들은 국가 궁도의 미래 저변임에도 학교 교육 진입과 학교 교육 외 교육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활쏘기는 어른들의 문화와 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145m 바탕 거리만 주장하지 말고, 일반 남녀와 노년 및 청소년(초·중·고교)의 체력에 따른 근거리 사거리를 새롭게 규정하여 전통문화와 스포츠로 정착시켜야 한다.

교육 당국의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에 제도적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국궁은 힘들고 어렵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일반인과 청소년들의 국궁장 접근을 멀리한 탓에 국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장비(활과 화살 등)와 교육 장소 및 교재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처우도 부족하여 초등(6,087개교) 중등(3,214개교) 고등(2,356개교)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및 방과 후 수업으로 국궁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60여 학교(2020년 기준)로 전체 학교의 1.4%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 궁도 인구 14만 중 학생이 70%(중, 고, 대, 일반 10:50:10:30)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도 전통 활 복원에 노력하여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는 최근에 대학 궁도연맹이 설립되었지만 한국은 국궁 인구 (15,000~20,000)의 대부분이 일반인이다.

학교스포츠클럽에 국궁이 포함되어 10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활쏘기 대회는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2곳에 불과하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학생 국궁대회, 천안독립기념관의 전국 청소년 전통활쏘기대회, 광주시 청소년 우리 활터 활쏘기 대회, 전국 화랑 활쏘기 대회, 예천 세계 전통 활쏘기 대회, 청도 화랑의 날 기념 신화랑 선발 전국 청소년 활쏘기 대회, 연천 흑의 장군 배 및 2019 전국 중 고 궁도대회, 2019 한국 중 고 궁도연맹 회장기 대회 등이 개최되었지만 관계기관의 지원이 미미하여 연속하여 개최하기가 어려운 행사도 있다.

활쏘기의 탁월한 교육적 가치를 홍보하고, 어른들의 문화에서 청소년 체육과 문화 활동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활쏘기를 스포츠 활동 외에 전통문화 유산으로,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체육 과목은 물론 전통문화 교육 및 인성 교육의 주요 교육내용으로 발전시켜 정규 교과와 창의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국궁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국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2023 계묘년 부호장공파 정알레 열 번째 봉행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주연)는 1월 26일(음력 정월 초 5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

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2023 계묘년(癸卯年) 파조(派祖) 정알레(正滿禮)"를 봉행(奉行)

권영건 보도부장

권영건 보도부장